

# 諸病源候論 · 腰背痛諸候에 대한 연구

안민식 · 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tudy on the *Yo Bae Byoung Hoo* of the *Je Bung Won Hu Ron*

Min Sik An,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Jebyeongwonhuron .Yobaebyeonjehu is well organized and detailed is stated of classification and cause, mechanism of lumbago. That is divided into nine classes according to cause and symptoms of lumbago and described those respectively. Although there is some different, classification of lumbago after ages is based on this method in the main. The outbreak mechanism of lumbago can be stated that wicked germ invade into the body in condition that spirit and energy, especially the kidney energy is poor through various reason. That is stressed on interior factors. In the relation to organs, it is inferred that outbreak of lumbago have connection with the kidney deeply.

Key words : lumbago, poor kidney energy, invasion of external germ, kidney

### 서론

『諸病源候論』은 隋代의 巢元方 등이 610년에 撰<sup>1)</sup>한 것으로, 통상 巢氏病源이라 簡稱한다<sup>2)</sup>. 書中の 病理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內經의 기본이론에 근거하여 闡發시킨 것으로<sup>3)</sup>, 중국 7世紀初의 매우 가치 있는 醫書이다. 이 書는 廣範하고도 비교적 系統的으로 많은 疾病을 記載하였으며, 이러한 疾病에 대한 기재도 또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그 증상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이론을 밝혔다<sup>4)</sup>.

「腰背痛諸候 凡九論」은 卷五에 編述되어 있으며, 腰背의 諸般 病症을 논술하였는데 내용은 腰痛을 위주로 다루었다. 病因과 病情의 차이에 근거하여 腰痛을 腎虛 · 風痺 · 勞傷 · 腎腰 및 臥濕 等 五種의 證候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腎着腰痛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병정의 新舊에 따라 卒腰痛 · 久腰痛 等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背僂候에 대하여 논하여 언급한 것은 背僂候가 風濕腰痛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原書에는 脇痛의 증후도 있었지만 腰背痛과 聯關性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卷十六에 移入하여 이어지도록 하여 聯系分析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腰痛은 臨床에서 많이 접하는 증상으로 腰痛의 病機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腰痛에 대하여 계통적이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諸病源候論』 가운데 卷五에 編述되

어있는 「腰背痛諸候 凡九論」을 선택하여 刊本の 差異를 比較하고 또한 註釋을 달았으며, 현재 임상에서 널리 응용하는 『東醫寶鑑』의 腰痛分類을 참고하여 腰痛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 연구방법 및 자료

本篇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 · 註釋 · 考察 · 直譯 · 結語 및 結語의 順으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한 清 · 周學海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懸吐는 傳來의 방식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現代화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校勘은 人民衛生出版社의 「諸病源候論校釋」에서 인용한 것을 再引用하였다.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音과 訓을 擇하였다.

마. 國譯은 直譯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意譯을 한 부분도 있다.

바.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 字句解에 '()', 인용문헌에 '『』' 등으로 표시하였다.

\* 교신저자 : 정헌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 접수 : 2003/03/24 · 수정 : 2003/04/10 · 채택 : 2003/05/27

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 서울, 1985. p. 272.  
2) 홍원식 :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1984년, 서울. p. 123.  
3) 上揭書, p123.  
4) 上揭書. p. 125

## 연구내용

### 腰背痛諸候 凡九論

#### 一. 腰痛①候

##### 【原文】

腎主腰脚하니 腎經虛損하면 風冷乘之라 故로 腰痛也라 又邪客于足少陰之絡하면 令人腰痛引少腹하야 不可以仰息②(1)이라

診其尺脈沈하면 主腰痛하고 寸口脈弱이면 腰痛하며 尺寸俱浮直上③直下면 此爲督脈腰痛④이라

凡腰痛病有五하니 一曰少陰이니 少陰은 腎也라 十⑤月(2)에 萬物陽氣⑥傷하니 是以腰痛이라 二曰風痺니 風寒者腰하야 是以痛⑦이라 三曰腎虛니 役用(3)傷腎하야 是以痛⑦이라 四曰腎腰(4)니 墜墮傷腰하야 是以痛⑦이라 五曰寢臥濕地⑦니 是以痛⑧이라

##### 【校勘】

① 痛 : 원래는 “病”으로 되어있다. 本書의 目錄에 따라 改作하였다. 元本에도 “痛”으로 되어있다.

② 邪客于足少陰之絡, ……不可以仰息 : 『素問·繆刺論』에는 “邪客于足太陰之絡 令人腰痛引少腹控眇 不可以仰息”으로 되어 있다.

③ 直上 : 原來는 없는데, 『脈經』 卷二 第四를 따라 補充하였다.

④ 腰痛 : 『脈經』에는 “腰背強痛, 不得俯仰”으로 되어있다.

⑤ 十 : 『太素』 卷八 經脈病解에는 “七”로 되어있다.

⑥ 陽氣 : 陽氣뒤에 『素問·脈解篇』에는 “陽氣皆傷”으로 되어 있다.

⑦ 寢臥濕地 : 『千金方』에는 “取寒眠地 地氣所傷”으로 되어있다.

⑧ 痛 : 『千金方』 卷十九 第七에는 “腰痛”으로 되어있다.

##### 【註釋】

① 仰息 : 몸을 뒤로 젖히면서 호흡하는 모양.

② 十月 : 亥월에 속하며, 이때는 陽氣가 衰하고 陰氣가 盛한다.

③ 役用 : 일하면서 힘을 쓰는 것.

④ 腎 : 허리아플 腎.

##### 【國譯】

腎은 腰脚을 主管하므로 腎經이 虛損되면 風冷의 外邪가 虛한 틈을 타고 侵入하기 때문에 腰痛을 惹起한다. 이외에 邪氣가 足少陰經의 絡脈을 侵入하면 腰痛이 있으면서 少腹까지 攴기면서 아파서 허리를 펴고 숨을 쉴 수가 없다. 診脈에서 尺部脈이 沈하면 主로 腰背痛이고, 寸口脈이 弱해도 主로 腰背痛으로 본다. 만약 寸部에 尺部까지 모두 脈이 浮하면서 또 곧바로 올라갔다 곧바로 내려오면 督脈病으로 誘發된 腰背強痛이다. 腰痛病은 보통 五種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少陰으로서 少陰은 腎을 말하는 것으로 陰氣가 始生하여 十月에 萬物의 陽氣가 衰退하면 腰痛이 된다. 둘째는, 風痺로서 風寒의 邪氣가 腰部에 留着하여 아프게 된다. 셋째는, 腎虛로서 勞役으로 傷腎하여 痛한다. 넷째는, 腎腰로서 墜墮跌倒하여 腰部를 損傷하여 痛한다. 다섯째는, 濕地에 寢臥하여 寒濕이 侵襲하여 發病한 腰痛이다.

##### 【考察】

本條는 腰痛에 대한 總論으로서 크게 “凡腰痛有五”라 하여

腰痛의 原因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첫째, ‘少陰’으로서 十月에 陽氣가 衰減하므로써 腰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腎虛腰痛 가운데 ‘腎陽虛’로 인한 腰痛으로 사료된다. 둘째, ‘風痺’로서 風寒의 邪氣가 腰部에 侵犯하므로써 腰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東醫寶鑑』에서의 風腰痛, 寒腰痛의 범주에 해당된다. 셋째, ‘腎虛’로서 ‘役用傷腎’으로 인한 것으로 비록 原文에서 房勞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房勞傷腎으로 인한 腎虛腰痛과 用力舉重으로 인한 挫閃腰痛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腎腰’로서 ‘墜墮傷腰’라 하였듯이 이는 瘀血로 인한 瘀血腰痛의 범주에 해당되며, 다섯째, ‘寢臥濕地’로서 濕腰痛과 濕熱腰痛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東醫寶鑑』에는 腎虛腰痛·痰飲腰痛·食積腰痛·挫閃腰痛·瘀血腰痛·風腰痛·寒腰痛·濕腰痛·濕熱腰痛·氣腰痛의 十種腰痛과 腎着證으로 分類하고 있어 本條에 痰飲腰痛, 食積腰痛, 氣腰痛 등이 없으나 『東醫寶鑑』에서 논하고 있는 내용과 詳略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일치하고 있어 後代에도 繼承되어 發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二. 腰痛不得俯仰候

##### 【原文】

腎主腰脚하고 而三陰三陽十二經(1)八脈①(2)이 有貫(3)腎하고 絡于腰背者하니 勞損于腎하고 動傷經絡하며 又爲風冷所侵하야 血氣擊搏(4)하니 故로 腰痛也라 陽病者는 不能俯하고 陰病者는 不能仰하며 陰陽俱受邪氣者는 故로 令腰痛而不能俯仰이라

##### 【校勘】

① 八脈 : ‘八脈’ 앞에 『聖惠方』 卷四十四의 腰痛強直不能俯仰 諸方에는 ‘奇經’의 二字가 있다.

##### 【註釋】

① 三陰三陽十二經 : 手足의 三陰經과 三陽經을 指稱하며 모두 十二經脈이 된다.

② 八脈 : 卽 奇經八脈으로서 督脈, 任脈, 衝脈, 帶脈, 陽蹻, 陰蹻, 陽維, 陰維등을 지칭한다.

③ 貫 ; 貫통을 관, 聯絡貫穿.

④ 擊搏 ; 打也 撞 격, 擊也 撞 박.

##### 【國譯】

腎은 腰脚을 主宰하는데 人體의 三陰三陽의 十二經脈은 奇經八脈과 더불어 서로 貫聯되어 있으며 腎臟은 腰背에 系絡한다. 勞役으로 腎을 傷하고 病勢가 搖動하여 손상이 經絡까지 及급되며, 또 風冷의 外邪가 侵襲하여 邪氣와 血氣가 서로 擊搏하여 腰痛이 發病한다. 陽이 病들면 陽脈이 急하여 앞으로 숙이지 못하고 陰이 病들면 陰脈이 急하여 뒤로 젖히지 못하며, 陰陽이 同時에 病들면 陰陽의 經脈이 모두 急하여 腰痛이 있으면서 俯仰을 自由로 할 수 없다.

##### 【考察】

本條는 腰脚의 部位가 腎, 十二經絡 및 奇經八脈과의 相關性과 腰痛의 病理機轉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즉 먼저 勞倦損傷이 특히 腎에 미치면 經絡에 及급되어 外邪에 대한 적응력이 減退하여 특히 風寒의 外邪에 感觸되기 쉬어 腰痛을 일으키며, 여러 經絡 가운데 邪氣가 陽脈에 侵犯하면 ‘不能俯’하며, 陰脈에 侵犯

하면 ‘不能仰’하며, 陰脈과 陽脈에 모두 侵犯하면 ‘不能俯仰’하는 辨證의 要點도 밝혀 놓았다.

三. 風濕腰痛候

【原文】

勞傷腎氣하야 經絡既虛하고 或因臥濕當風하야 而風濕乘虛搏于腎①經하면 與血氣相擊而腰痛하니 故로 云 風濕腰痛이라

【校勘】

① 腎 : 原書에는 ‘腎’字 一字를 重複되어있다. 『聖惠方』卷四十四의 風濕腰痛諸方刪에 따르면 衍字인듯하다.

【國譯】

風濕腰痛은 勞役過度하여 腎氣를 損傷하여 經絡이 이미 虧虛한 상태에서 或 濕地에 起居하거나 風邪에 露出되어 風濕이 虛를 搏타 腎經을 侵入하여 血氣와 相搏하여 惹起된 腰痛이다. 그러므로 風濕腰痛이라 한다.

【考察】

本條는 腎氣가 損傷되어 이미 經絡이 虛한 상태에서 濕과 風의 外邪에 노출되면 風濕의 外邪가 腎經에 影響을 미쳐 腰痛을 일으키는 機轉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즉 人體의 正氣가 먼저 虛損되어 經絡까지 虛해지면 露出되는 外邪에 따라 症狀이 다르며 이에 따라 명칭을 달리 분류하였다.

四. 腎腰痛

【原文】

腎腰者는 謂卒然傷損于腰而致痛也라 此는 由損血(1)搏于背①脊所爲요 久不已하면 令人氣息乏少하고 面無顔色하니 損腎故也라

【校勘】

① 背 : 『聖惠方』卷四十四의 腎腰痛諸方에는 “腰”로 되어있다.

【註釋】

① 損血 : 損傷을 받아 血이 滲出되어 瘀血을 이룬 것이다.

【國譯】

腎腰는 갑자기 墜墮跌仆하여 腰部를 損傷하여 일어난 腰痛이다. 이는 血脈을 損傷하여 瘀血이 腰背部에 돌렸기 때문에 된 것이며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呼吸이 緩弱해지고 面部에 潤色이 없어지니 이는 腎이 損傷되었기 때문이다.

【考察】

本候는 卽 第一條 腰痛候의 ‘腰痛有五’中 ‘四曰腎腰’의 病理變化 및 臨床見症이다. 原書에는 다음의 腎着腰痛의 아래에 있는데 앞쪽으로 옮긴 것은 風濕腰痛과 서로 聯關이 깊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내용상 『東醫寶鑑』의 挫閃腰痛 및 瘀血腰痛과 관계가 깊다.

五. 卒腰痛候

【原文】

夫勞傷之人은 腎氣虛損하고 而腎主腰脚하고 其經은 貫腎絡脊하니 風邪乘虛하야 卒入腎經하니 故로 卒然而患腰痛이라

【國譯】

일반적으로 勞倦의 損傷을 입은 사람은 腎氣가 虛損되고, 腎은 腰脚을 主宰하고 腎經은 腎을 貫하여 脊에 絡하니 風邪가 虛한

틈을 乘하여 별안간 腎經으로 侵入하므로 卒然히 腰痛을 앓는다.

【考察】

卒腰痛은 勞役으로 인하여 腎氣虛損이 된 상태에서 다시 風邪가 腎氣의 虛損한 틈을 타고 侵入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六. 久腰痛候

【原文】

夫腰痛은 皆由傷腎氣所爲라 腎虛하면 受于風邪하고 風邪는 停積于腎經하야 與血氣相擊하고 久而不散하니 故로 久腰痛이라

【國譯】

대체로 腰痛은 대부분 腎氣가 損傷되어 유래된 것이다. 腎虛하면 風邪를 感受하고 風邪는 腎經에 머물러 쌓여 血氣와 서로 擊突하고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으므로 久腰痛이다.

【考察】

卒腰痛候와 久腰痛候 二條는 腰痛에 二種의 病情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風邪가 갑자기 虛한 틈을 타고 갑자기 腎經으로 침범한” 것으로서 卒腰痛이 나타난 것이며, 다른 하나는 “風邪가 腎經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흩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久腰痛이 되는 것이다. 臨床所見으로 둘 사이의 관계는 대개 前者는 病의 始發이고, 後者는 前者가 연속되어 不注意하여 徹底히 治療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症候는 交替로 出現하므로 쉽게 治愈되지 않는다.<sup>5)</sup>

七. 腎著(1)腰痛候

【原文】

腎主腰脚하니 腎經虛則受風冷하고 內有積水하니 風水相搏하야 浸積①于腎하니 腎氣內著하야 不能宣通하니라 故로 令腰痛하니 其病狀은 身重腰冷하고 腰②重如帶五千錢(2)하야 如坐于水③하고 形狀④如水하며 不渴하고 小便自利하며 飲食如故하고 久 久變爲水病하니 腎濕故也라

【校勘】

- ① 積 : 『外台』卷十七 腎着腰痛方에는 “漬”로 되어있다.
- ② 腰 : 原來 “腹”으로 되어있는데, 『脈經』卷六第九에 따라 고쳤다.
- ③ 于水 : 『金匱』第十一에는 “水中”으로 되어있다.
- ④ 形狀如水 : 『金匱』에는 “形如水狀”으로 되어있다.

【註釋】

- ① 著(zhuó 着) : 곧 着的 本字이다.
- ② 腰重如大五千錢 : 腰部가 沈重한 것을 比喻한 것으로, 動作의 不利感을 나타낸다.

【國譯】

腎은 腰脚을 主宰한다. 腎經의 經氣가 虛하면 쉽게 風冷의 外侵을 感受하여 水濕이 안에 쌓이게 되어 風邪와 水氣가 結合하여 腎을 浸潤하여 腎氣가 안에서 달라붙어 宣通하지 못하기 때문에 腰痛이 發生한다. 證狀은 自覺의으로 身體가 重墮하고 腰部가 沈冷하여 腰에 五千錢을 달아 놓은 듯하고 또한 물 속에 빠져 앉아있는 듯하다. 症狀이 水病처럼 渴症이 없고 小便이 通利

5) 南京中醫學院 :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년. p. 145

하며 飲食이 如常한 것은 病이 長期化되면서 水病으로 轉變된 것으로 腎이 水濕으로 停滯된 때문이다.

【考察】

腎着腰痛은 腎陽이 虛하여 化濕작용이 안되어, 風冷과 水濕의 邪氣가 腰部에 沈着하여 身重腰冷하고, 水中에 앉은 듯하다. 口不渴하고, 小便自利하며, 飲食如故하니, 本候를 說明하는데 있어 重點을 腰部의 疼痛에 局限하였고 內臟의 病變은 뚜렷히 밝히지는 않았다.<sup>6)</sup>

八. 腰脚疼痛候

【原文】

腎氣不足하여 受風邪之所爲也라 勞傷則腎虛하고 虛則受于 風冷하니 風冷與眞氣交爭 故로 腰脚疼<sup>①</sup>痛이라

【校勘】

① 疼 : 原說에는 本候의 標題에 따라 補充하였다고 했다. 原本에도 “疼”字가 있다.

【國譯】

腰脚疼痛은 腎氣가 不足하여 風邪의 侵入을 받았기 때문이다. 過勞하여 腎氣가 虛해지고, 腎氣가 虛하면 風冷의 病邪에 쉽게 感受되어, 邪氣와 正氣가 서로 爭奪하므로 腰脚疼痛하게 된다.

【考察】

腰脚疼痛은 原因이 風邪이다. 앞의 卒腰痛候와 久腰痛候와 마찬가지로 腎虛한 뒤에 風邪가 侵犯하므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東醫寶鑑』의 分類上 風腰痛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九. 背僂(1)候

【原文】

肝主筋而藏血하며 血爲陰이요 氣爲陽이라 陽氣는 精則養神하고 柔則養筋하니 陰陽和同하면 則血氣調適하여 共相榮養也니 邪不能傷이나 若虛면 則受風하여 風寒搏于脊之筋<sup>(2)</sup>하며 冷則 攣急 故로 脊背僂니라

【註釋】

① 背僂 (lóu 婁) : 등을 구부리다. “婁”는 구부렸다 폈다하는 모습이다.

② 脊之筋 (jí 族)之筋 : 즉 背部 양쪽 筋肉이다. “脊之筋”은 곧 脊梁骨이다.

【國譯】

肝은 筋을 主宰하며 血을 貯藏한다. 血은 陰分에 屬하고 氣는 陽分에 屬한다. 陽氣가 內로 化하여 精微해지면 養神하고, 外로 柔滑해지면 養筋한다. 陰陽이 和同하면 血氣가 調和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體質에 榮養을 주고 抵抗力을 增強시켜, 邪氣가 傷害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 虛해지면 쉽게 風寒을 感受하여 風寒이 脊之筋으로 侵犯하며 筋은 寒을 맞으면 攣急해 지므로 背僂를 形成한다.

【考察】

背僂는 僂僂를 달리 부른 이름이며가 늙거나 병으로 등이 굽

어져서 펴지 못하는 것으로 先天性 脊椎畸形으로 오는 굽사등 때도 볼 수 있다.<sup>8)</sup> 病源辭典<sup>9)</sup>에서는 原因을 “腎傷髓虧所致”라 하였으나 本條는 氣血의 調和를 喪失한 상태에서 風寒의 外邪가 주로 脊之筋의 筋을 損傷하여 나타나는 病症으로 論述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外形篇의 背에 따로 編述하여 本書와는 달리 分類하였으며, 『素問·生氣通天論』의 “濕熱不攘 大筋緘短 小筋弛張 緘短爲拘 弛張爲痿”를 引用하여 原因을 濕熱로 보았으며, “老人僂僂 乃精髓不足而督脈虛也 宜用補腎益精髓之劑”라 하여 老人의 僂僂의 경우에 대한 原因과 治法을 제시하였다.

고찰 및 결어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腰痛候와 관련된 내용은 腰痛候는 ‘腎經虛損 風冷乘之’, 腰痛不得俯仰候는 ‘勞損于腎 動傷經絡 又爲風冷所侵’, 風濕腰痛候는 ‘勞傷腎氣 經絡既虛 或因臥濕當風 而風濕乘虛搏于腎經’, 卒腰痛候는 ‘夫勞傷之人 腎氣虛損 而腎主腰脚 其經貫腎絡脊 風邪乘虛 卒入腎經’, 久腰痛候는 ‘腎虛受于風邪 風邪停積于腎經’, 腎著腰痛候는 ‘腎經虛則受風冷 內有積水 風水相搏’ 등으로 공통적으로 腎經, 腎 및 腎氣 등 五藏 가운데 腎과 關聯시켰으며 腎이 虛損된 상태에서 勞役과 風冷·風濕·風邪·臥濕當風 등의 外邪가 侵犯되어 腰痛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腰와 腎과의 相關性에 관하여 『素問·脈要精微論』에 “腰者 腎之府 轉搖不能 腎將僂矣”라 하여 腰部는 五藏 가운데 腎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腰部의 病症은 모두 腎이 病들게 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밝혀 놓았다. 또한 『諸病源候論』에서 腰痛에 대한 觀點은 모두 腎虛證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外邪의 侵入으로 인하여 腰痛이 발생되지만 그 전에 勞役으로 인하여 腎虛한 상태가 된 뒤에 邪氣의 侵犯으로 腰痛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其氣必虛”의 精神을 계승한 것이다.

腎腰痛候는 內的인 素因보다 外적인 衝擊이 主要因으로 작용한 腰痛으로 흔히 ‘挫閃腰痛’, ‘瘀血腰痛’ 등과 연관지어 보면 될 것으로 본다. 背僂候는 氣血 및 陰陽의 失調로 인하여 精神氣血이 虛해진 틈을 타서 風寒의 邪氣를 받아 발생된 腰痛으로서, 『東醫寶鑑』 分類上 氣腰痛과 一脈相通한다고 본다. 즉 임상적으로 ‘스트레스성’ 혹은 ‘신경성’으로 구분되는 腰痛으로 사료된다.

風濕腰痛候와 腎著腰痛候의 鑑別점은, 前者는 腎氣가 勞傷하여 經絡이 虛해진 상태에서 風濕의 邪氣를 感受한 것이라면, 後者는 腎經이 虛하여 風冷의 外邪를 感受하였는데 水毒이 內在한 상태로 인해 風水가 相搏하여 형성된 점이 다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음.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재편집 동의화사전, 서울, 1994년. p. 346.  
8) 上掲書, p. 111  
9) 海南·吳克潛 : 病源辭典, 東方書店, 臺灣, 1936년. p. 767.

6) 上掲書, p. 147

## 참고문헌

1. 南京中醫學院：諸病源候論，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3.
2. 許浚：東醫寶鑑，南山堂，서울，1998.
3. 王冰：新編黃帝內經素問，대성문화사，서울，1994.
4. 王素：外臺秘要，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6.
5. 王叔和：脈經，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8.
6. 孫思邈：備急千金要方，中醫古籍出版社，北京，1999.
7. 王懷隱：太平聖惠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 참고사전류

1. 謝觀：東洋醫學大辭典，高文社，서울，1980.
2. 홍원식：중국의학사，동양의학연구원，서울，1984
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編，서울，1985.
4. 동의학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도서출판 까치，서울，1990.
5. 海甯·吳克潛：病源辭典，東方書店，臺灣，1936.
6. 康寔鎭 編：中韓大辭典，進明出版社，서울，1993.
7. 金赫濟·金盛元 編著：明文漢韓大字典，明文堂，서울，1987.